

광주시, 저소득층 3500명에 맞춤형 복지일자리 제공

올해 4대 분야 16개 자활지원 사업에 489억원 투입

광주시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3500여 명에게 맞춤형 복지일자리 제공을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 복지일자리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자활생산품 판로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 4대 분야 16개 세부사업에 48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120개 자활사업단과 46개 자활기

업 운영, 신규 자활사업 발굴 등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380억 원을 투입, 3500여 명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맞춤형 복지일 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활사업단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입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한 창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광산지역자활센터는 이달 문을 여는 하남산단 작업복 세탁소를 수탁 운영하고, 하반기 개관할 빛고을 국민안전체험

관 북구희망자활센터가 구내식당과 카페를 운영한다.

동구자활센터는 하이트진로 지원을 받아 청년자활사업단이 ‘베이커리카페 빵그레’ 창업을 추진중, 식품제조사업단에서는 해적(HACCP) 인증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자활사업 운영에 점포가 필요한 사업단에는 연 1%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활생산품의 인지도 향상과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을 통해 공동브랜드 ‘소소드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광역자활센터에 마케팅 전문인력을

채용해 포장재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참여자의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다.

자격증 취득, 전문분야 기술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사례관리사들이 초기 상담과 진입단계부터 개별 특성에 맞는 자립계획 수립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활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목돈마련을 통한 자립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월 3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을 지난해보다 200명 증가한 600여 명으로 확대하는 등 자산형성 사업에 3200여 명에게 56억 원을 지원한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활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과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일자리 제공과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함평군, 내 손안의 건강지킴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

함평군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과 스마트 밴드를 활용해 어디서나 보건소 내 전문가(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운동전문가, 영양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에게 개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앞서 군은 만 19세 이상 관내 거주자 혹은 직장인 중 질환이 없고 건강위험요인 1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

로 참여자 100명을 모집했다.

군은 이달부터 참여자 건강상태 측정 및 건강위험요인 확인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24주간 사업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시계형 활동량계를 무료로 지원받고 개인별 건강실천 모니터링과 건강정보 제공 등 개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기자

곡성군,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올해도 출발

13년 간 운영해온 곡성군 대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난 4일 곡성군이 오산면 안평마을에서 2021년 첫 번째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실시했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2008년부터 13년 간 운영해온 곡성군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지마을에 사는 주민을 찾아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11개 읍면 마을을 순회할 계획이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의 장점은 농촌 주

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기계 수리에서부터 한방진료, 양방진료, 전기안전 점검, 이동빨래방, 이동목욕, 보행경사로 설치 수요조사, 칼같이, 안경수리, 맞춤형 상담, 여성취업상담, 방역소독 서비스까지 총 12가지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올해는 12가지 서비스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라 제공 서비스의 가짓수를 조정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특



히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코로나19 전문 방역소독과 함께 해충, 독충 등 각종 위해충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소독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금호평생교육관, ‘2021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금호평생교육관이 3~12월(7~8월 제외) 학령기 이후의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1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서구 장애인복지관,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라브리주간보호센터, 해송주간보호센터 등 4개 장애인복지시설과 협력해 운영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오는 9일부터 매주 1회씩 장애인복지시설별 총 30회 과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들이 교육·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독서지도 전문 강사를 해당 장애인복지 시설에 파견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책 읽어주기 및 다양한 독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수업재료 및 활동도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금호평생교육관은 거리두기 단계, 해당 기관 운영 방침, 강의 환경, 수강생 수준 등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및 소규모 그룹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식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